

석사학위작품

## 그림책으로 들어간 정조의 행차도

-숫자 책으로 재구성한 정조의 화성 행차도 -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이 화

석사학위작품  
지도교수 김선태

## 그림책으로 들어간 정조의 행차도

-숫자 책으로 재구성한 정조의 화성 행차도 -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이 화

석 사 학 위 작 품  
지도교수 김선태

## 그림책으로 들어간 정조의 행차도

-숫자 책으로 재구성한 정조의 화성 행차도 -

위 작품을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이 화

이화의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전 동호 (인)

심사위원 김신재 (인)

심사위원 박한규 (인)



# 그림책으로 들어간 정조의 행차도

〈숫자 책으로 재구성한 정조의 화성 행차도〉

이화 석사학위청구전

2023. 11. 8 - 11. 12

## 작가 노트

조선시대 정조(正祖)의 능행차는 한 번쯤 들어볼 법한 꽤나 친숙한 이야기다. 하지만,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의 회갑연을 기록한 책 원행을묘정리의궤 <8책 635장 1270쪽>는 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한 번에 보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전체 이야기를 3년간 그림책으로 출간 <봄별출판사, 글 윤민용, 그림 이화>을 준비하며 의궤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렸던 그림들을 재구성하여 숫자 책 형태의 아트 북을 기획하였다.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지만, 정조의 화성 행차에 담긴 예술적, 학문적, 역사적 가치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작업할 수 있었다.

### 1. 의궤가 나에게 주는 의미

의궤란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후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일체의 관련 사실을 그림과 문자로 기록한 책을 말한다. 예의와 격식이 갖추어진 아주 멋진 종합예술 활동의 기록이다.

미술관에서 열렸던 병풍 전시회에서 무심히 의궤 그림을 마주했다. 바로 눈높이에 건고라는 아주 신기하고 커다란 악기가 보였다. 그렇게 건고가 내 마음에 들어와 아주 큰 호기심을 자극했다. ‘익살맞게 생긴 호랑이들이 바닥을 지키고, 백로가 맨 위에 앉아 있는 이 커다랗고 화려한 북은 무엇이지?’ 자꾸만 생각나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다. 의궤 안 잔치에 나도 모르게 초대된 기분마저 들었다. 악학궤범을 한글로 번역한 책도 사서 읽어보니, 순서에 맞게 맞추어진 다양한 무용과 악기들이 새삼 놀랍고 대단하게 느껴졌다. 다양한 악기들의 연주에 맞추어 춤추는 무동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를 흔들었다. 무동의 존재도 몰랐던 나는 다시 한번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나이 어린 소년들이 부모님 품을 떠나 얼마나 외롭고 힘겨웠을지 안쓰럽기도 하고, 저런 멋진 무대 한가운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꿈을 꾸는 소년의 모습도 상상이 되었다. 반차도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움직임과 표정이 달랐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웃음이 날 정도로 재미났다. 의궤나 반차도에서 나오는 수많은 작은 인물들이 때로는 요정 같고 인형 같은 느낌이 든다. 궁궐의 아름다운 지붕, 악기, 기물들은 장식적 요소를 풍부하게 도와주고 있다. 이 모티브들을 소재로 그릴 때 재미난 놀이를 하는 기분마저 든다. 그때부터 의궤는 나에게 보물 같은 이야기가 잔뜩 숨겨진 아주 크고 멋진 그림책으로 보였다.

특히, 정조대왕의 8일간의 행차 기록은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귀중한 이야기였다. 의궤에는 화려하고 다양한 도설과 함께 장인층까지 포괄하는 상세한 참여 인원의 명단, 다양하고 세세한 물품들 등 아주 구체적인 기록이 담겨있다. 의궤의 다양한 그림의 요소를 재해석하여 그림책, 모시 아트북 등 키치적 요소로 감상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창작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 2. 작품제작 과정

전통 안료들을 사용할 때의 장점은 작품의 대상을 좀 더 아름답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 안료들은 본인이 가장 원하는 색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다.

사용한 재료들은 다음과 같다. 수간 안료, 봉채, 등황, 호분, 석채, 주사, 먹, 아교, 금박, 금니

### 2-1 그림책 원화 준비과정

#### 1) 스케치

다양한 의제 자료들을 그림책 원화에 맞추어 스케치하여 글 자리를 감안하여 여백을 구성한다.

#### 2) 교반수 칠하기

아교 3%, 백반(아교의 10%) 비율로 물에 중탕하여 녹인 후 평필로 교반수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 3) 초그리기

먹을 갈아서 물과 3% 아교를 섞어 농도를 맞춘 뒤에 순지 아래 스케치 종이를 대고 세필로 선묘한다.

#### 4) 채색하기

등황, 호분 등 비교적 밝은 채도의 색부터 봉채, 수간 안료의 색들을 순차적으로 채색한다. 호분, 수간 안료는 곱게 갈아 아교로 개어낸 뒤에 물을 섞어 농도를 맞춘다. 먹, 봉채는 물에 갈아 쓰고, 석채, 주사는 아교에 개어 층을 분리한 뒤에 채색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올리지 않고 층을 쌓듯이 채색을 덧입히며 투명도 있는 맑고 고운 그림 색이 발색 되도록 한다. 음영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색을 조색하여 선염한다. 금니로 마지막 부분에 포인트를 준다.

#### 5) 배접하기

순지에 배접풀을 쭈어 배접판에 붙여 건조 시킨다.

#### 6) 스캔하기

출판사와 협약 된 스캔 업체에 맡겨서 인쇄에 적합한 채도를 맞추어 스캔한다.

### 2-2 모시 숫자 아트북 준비과정

#### 1) 스케치

그림책 원화 작업 했을 때 생각해 둔 그림들을 숫자에 맞추어 스케치를 맞춘다.

#### 2) 정련하고 다림질하기

미지근한 물에 조심스럽게 모시를 정련한 뒤에 건조한다. 올을 잘 맞추어 다림질한다.

#### 3) 교반수 칠하기

담요 위에 두어 아교는 물의 3%, 백반은 0.3%로 포수를 2회 시행했다. 올이 틀어지지 않도록 여러 번 모시를 매만져 형태를 보존했다.

#### 4) 호분 포수하기

소재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두루마리 형태의 모시 바탕에 호분포수법을 이용하였다. 모시 섬유의 고유의 특성을 살려 진채를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호분 포수법을 사용한 이유는 전통 진채의 아름다운 발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호분을 10% 아교액을 희석하여 곱게 갠 뒤에 물을 추가하여 평붓으로 밀 작업을 하였다.

#### 5) 초그리기

먹을 갈아서 물과 10% 아교를 섞어 농도를 맞춘 뒤에 순지 아래 스케치 종이를 대고 세필로 선묘한다.

#### 6) 채색하기

모시는 울이 굵기 때문에 바탕 작업이 꽤나 까다로운 직물이었다. 등황, 호분 등 비교적 밝은 채도의 색부터 붕채, 수간 안료의 색들을 순차적으로 채색한다. 호분, 수간 안료는 곱게 갈아 아교로 개어낸 뒤에 물을 섞어 농도를 맞춘다. 먹, 붕채는 물에 갈아 쓰고, 석채, 주사는 아교에 개어 층을 분리한 뒤에 채색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올리지 않고 층을 쌓듯이 채색을 덧입히며 투명도 있는 맑고 고운 그림 색이 발색 되도록 한다. 음영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색을 조색하여 선염한다.

#### 7) 금니, 금박 올리기

금니와 금박으로 마지막 부분에 5% 아교를 도포 후 접착하여 포인트를 준다.

행차하는 긴 행렬을 표현하기에 3미터의 긴 두루마리 형태의 숫자 아트 북은 감상자에게 끊기지 않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렬의 방향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방향으로 맞추어 작업했다. 영화를 감상하듯 끊기지 않는 발걸음이 포인트이다. 내가 빠져들었던 의뢰의 매력을 감상자도 이번 전시를 계기로 느끼고 이 행차를 진심으로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조선시대 궁중행사도III(국립중앙박물관),
- 1979년 정조의 수원행차(수원화성박물관),
- 화성원행도(華城園幸圖)》, 1795년, 8첩 병풍, 비단에 채색, 각 147.0×62.3cm, 삼성미술관 리움,
- 《화성원행도(華城園幸圖)》, 1795년, 8첩 병풍, 비단에 채색, 각 151.2×65.7cm, 국립중앙박물관(덕수 1042),
- 봉수당 진찬도, 1795년 156.2x65cm, 동국대학교박물관
- 『원행을묘정리의궤』 원문 PDF>,
- 『화성성역의궤』 원문 PDF>
- 조선의 연회와 놀이(고려대학교 박물관) 2018년
- 인간적 사회의 기초(2014) 민음사
- 자크라캉. (1994).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그림 책표지









수원화성전도\_65.2cm x 37.2cm\_순지에채색\_2023





서울과 화성지도 35.3cm x 40.3cm \_\_순지에채색\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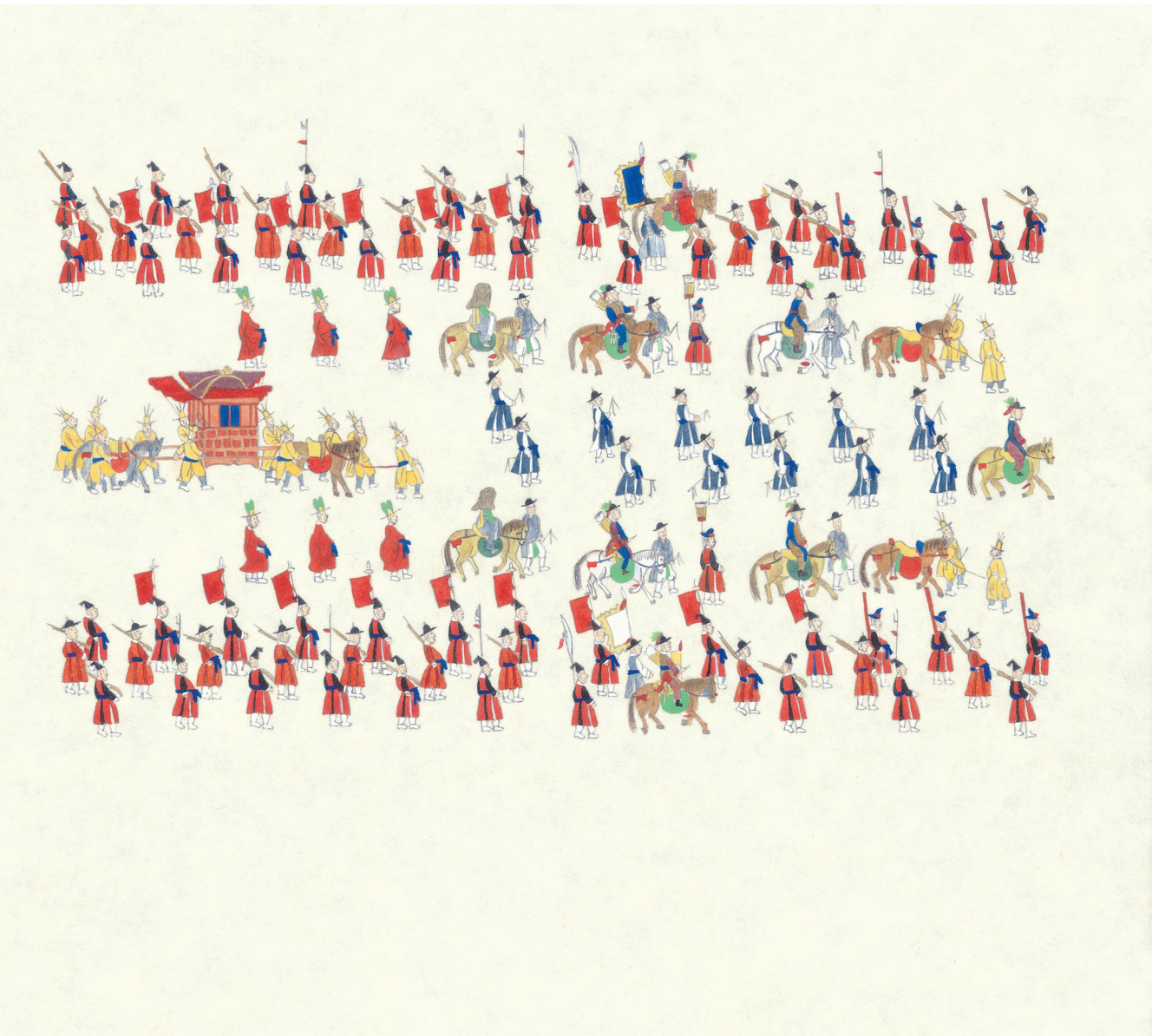




화성성묘전배도\_35.3cm x 40.3cm \_\_순지에채색\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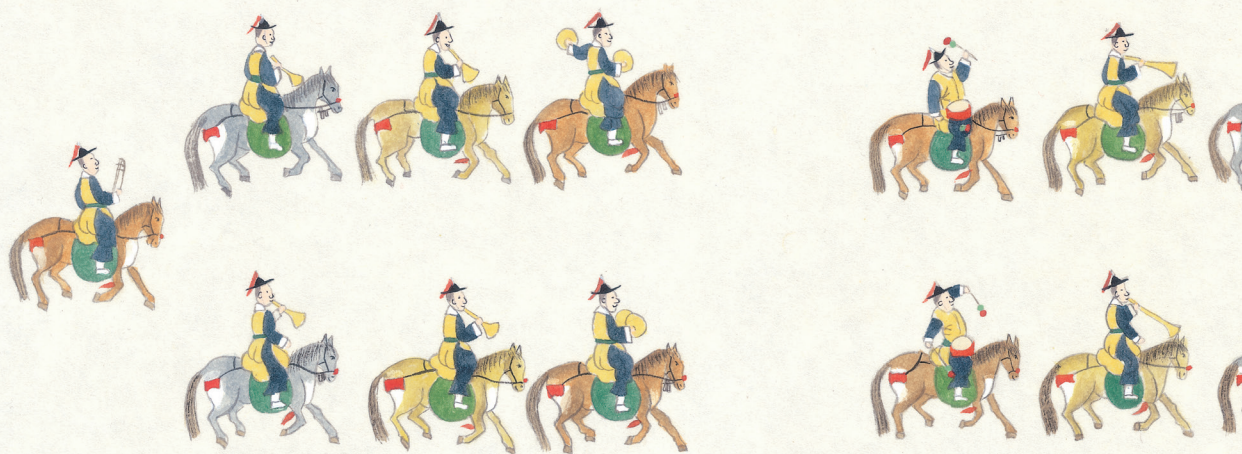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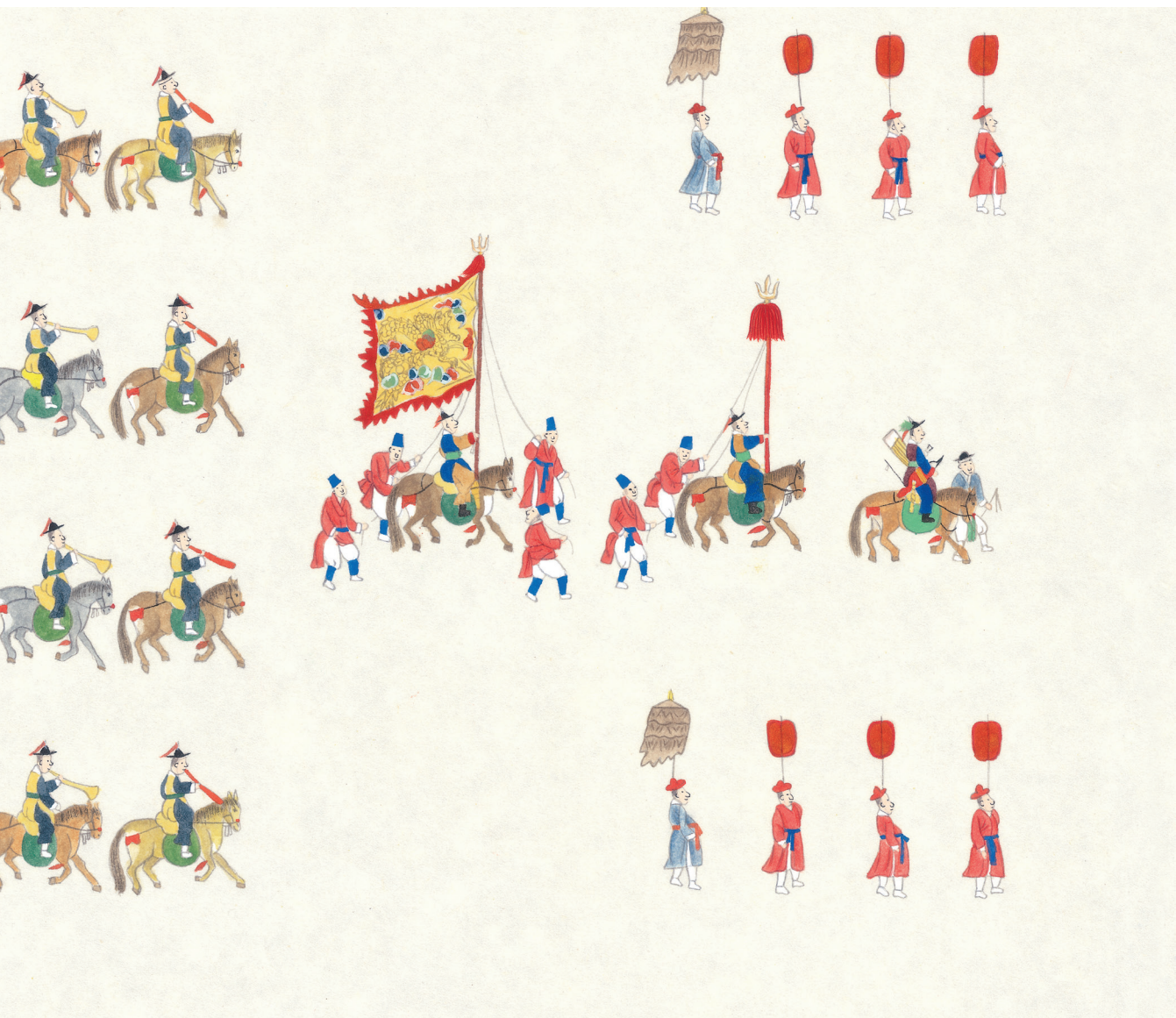


반차도 I \_ 65.2cm x 26cm \_순지에채색\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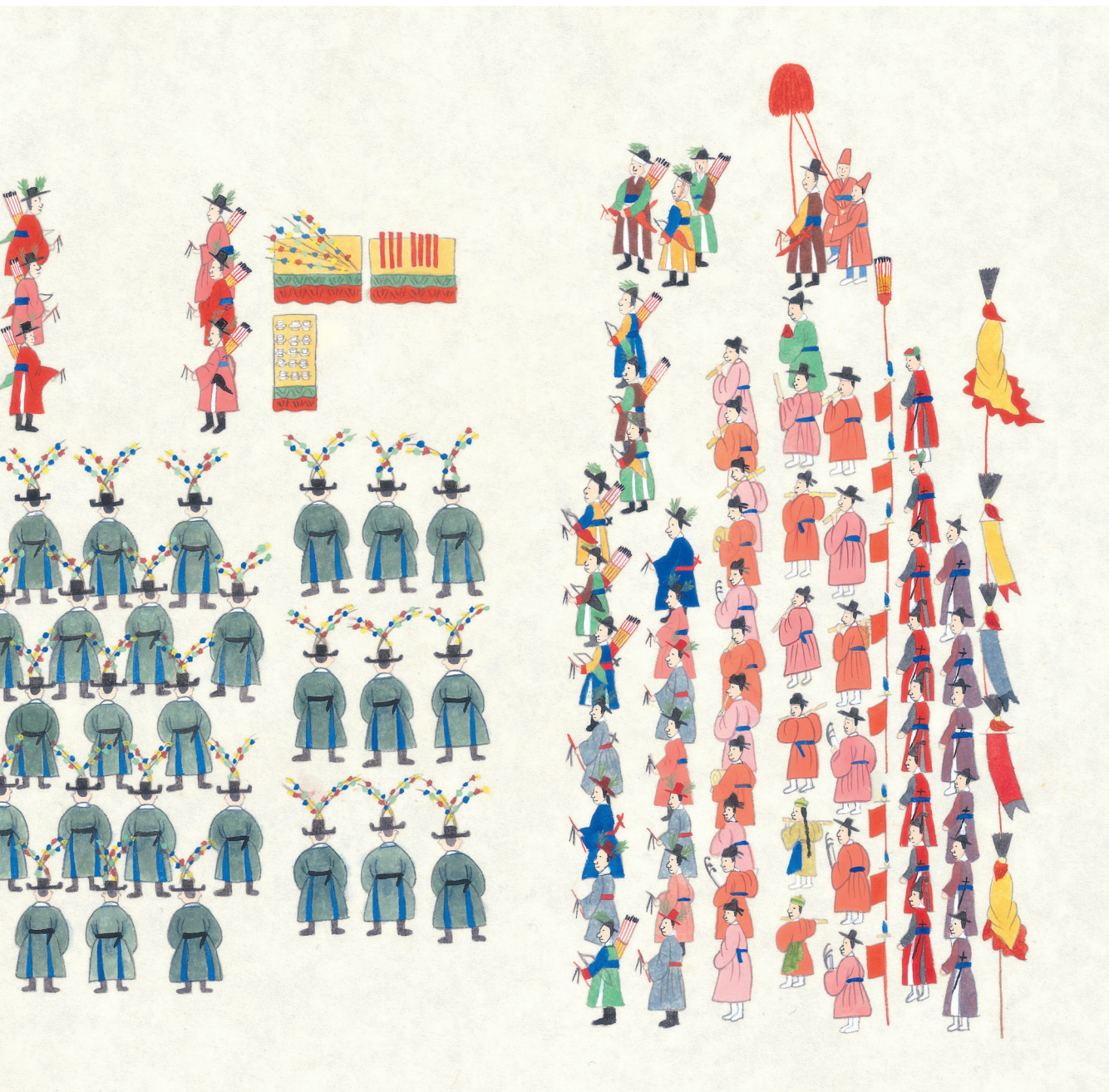


반차도 II \_ 65.2cm x 37.2cm \_\_순지에채색\_2023









낙남현방방도\_65.2cm x 37.2cm\_\_순지에채색\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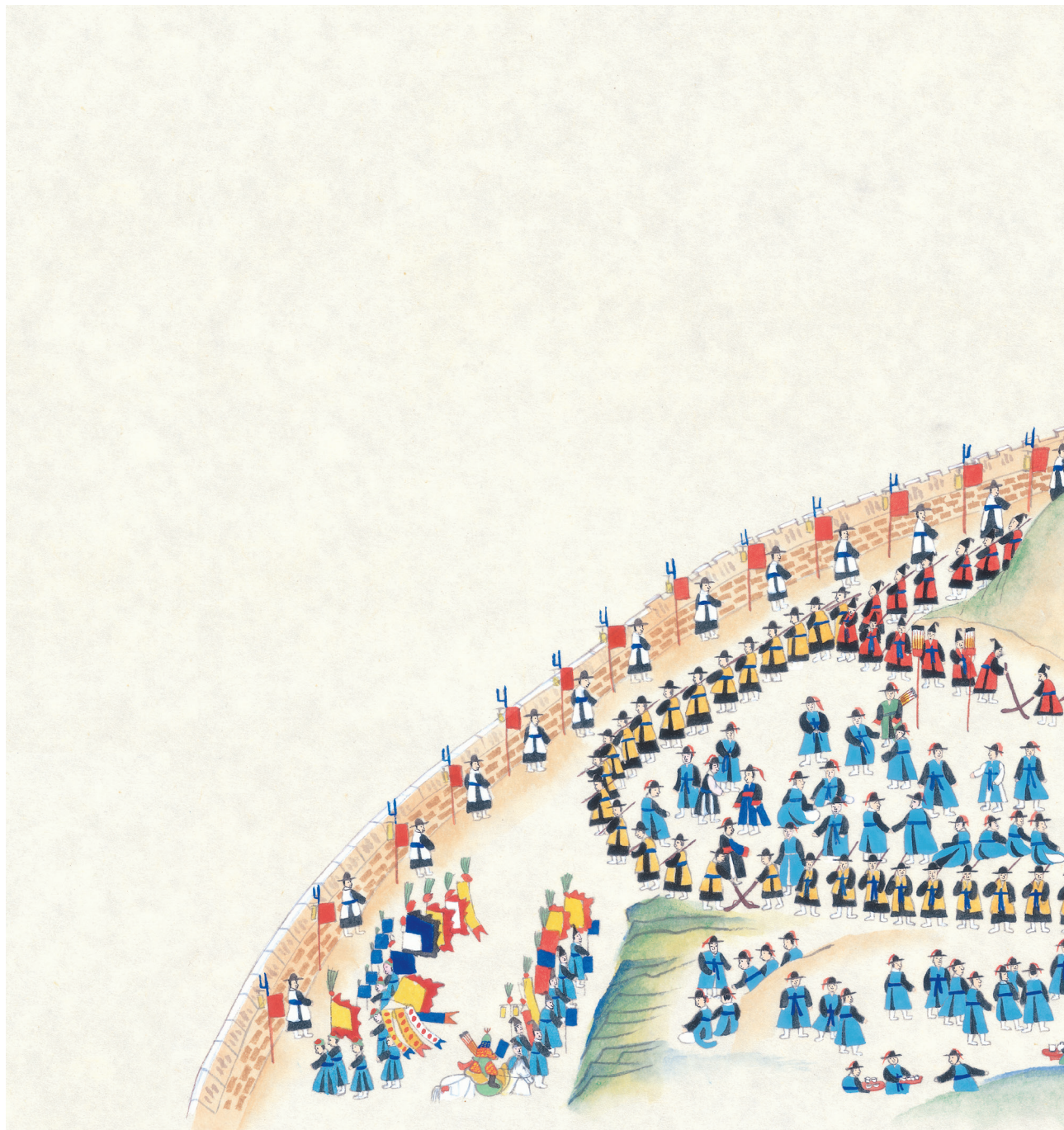






현릉원 참배도\_55cm x 37.2cm\_순지에채색\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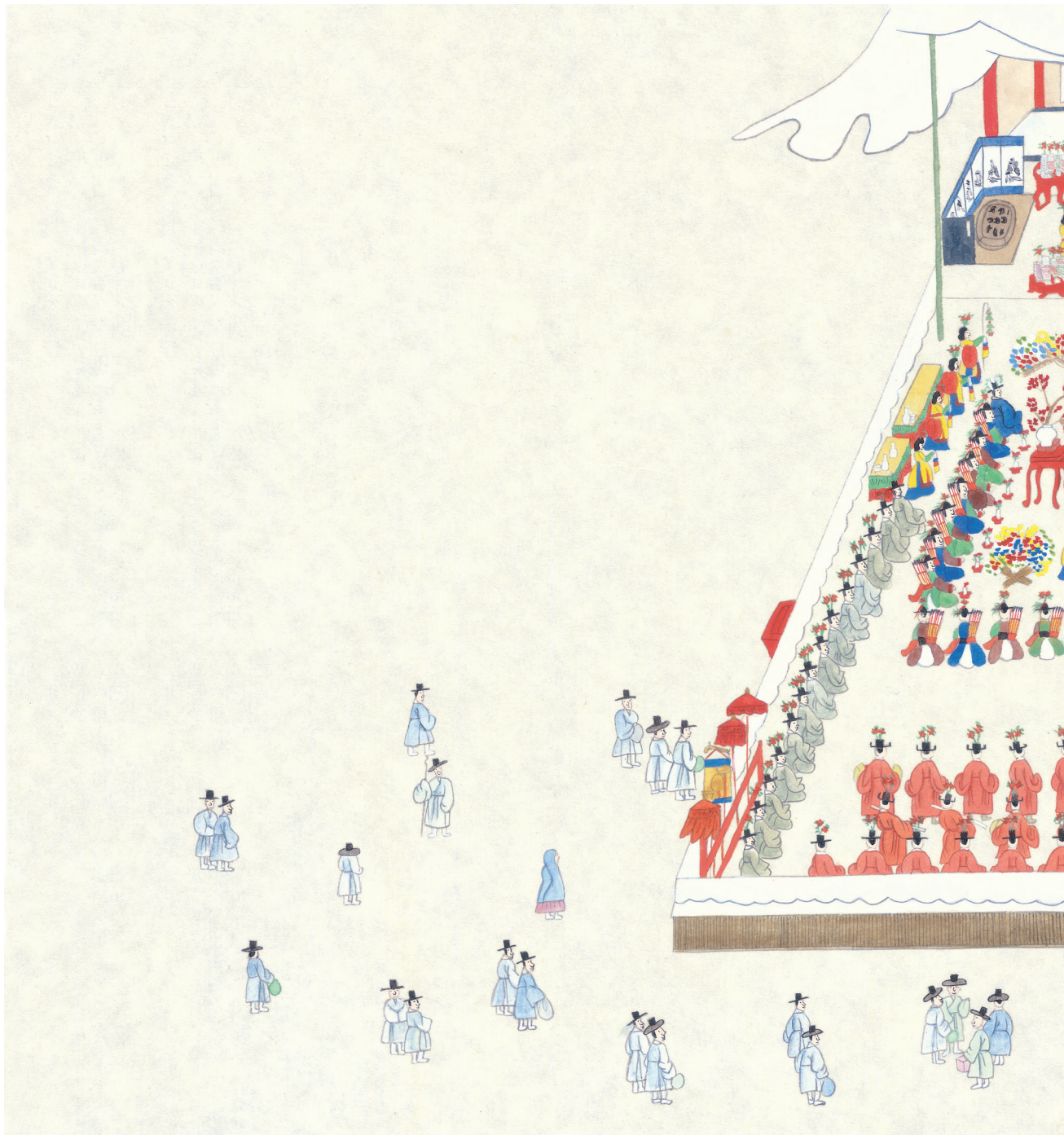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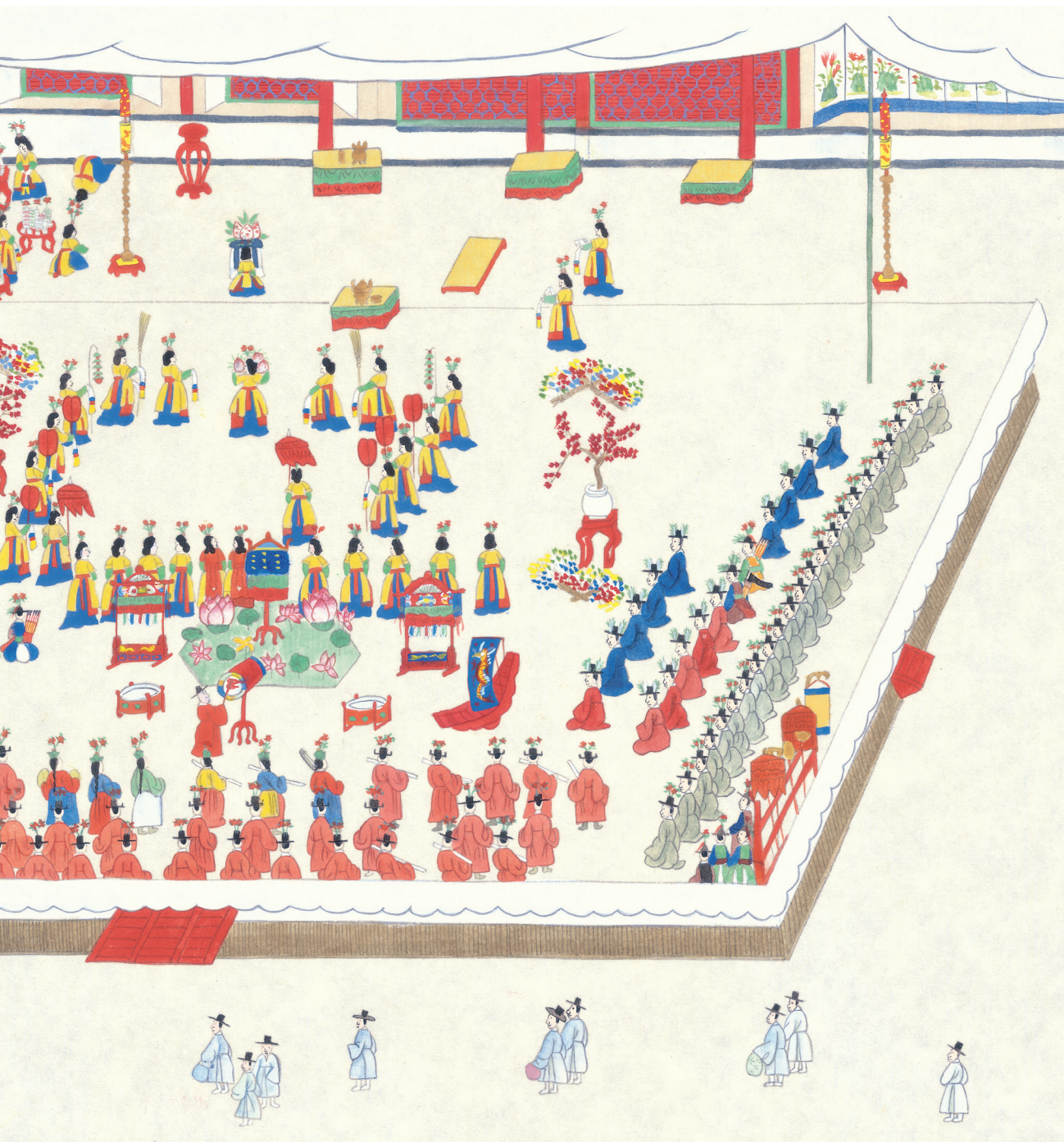


서장대훈련도 \_65.2cm x 37.2cm\_\_순지에채색\_2023









봉수당진찬도 시작 전 \_65.2cm x 37.2cm\_순지에채색\_2023





봉수당진찬도 \_37.2cm x 65.2cm\_\_순지에채색\_2023



신풍루 사미도 \_35.3cm x 40.3cm\_순지에채색\_2023





낙남헌양로연도 \_35.3cm x 40.3cm\_\_순지에채색\_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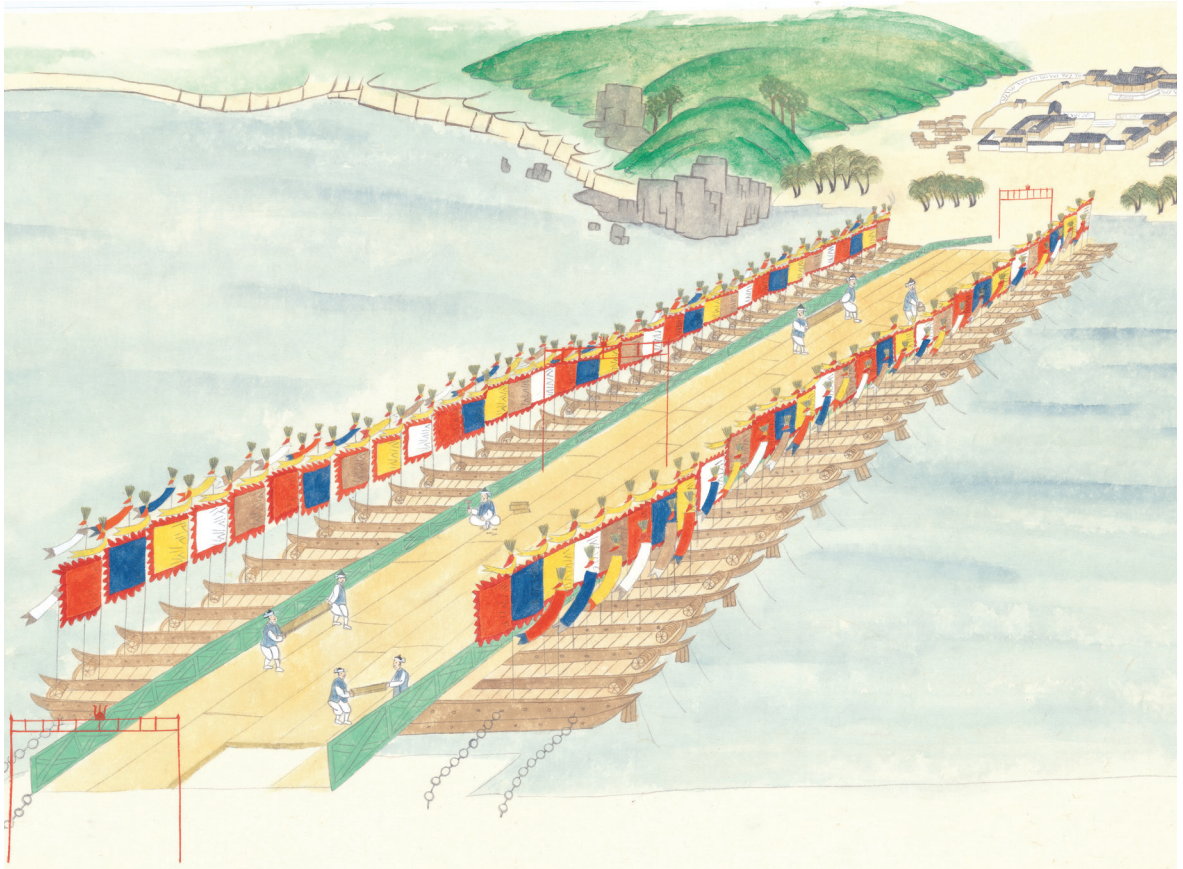


춘당대잔치 \_35.3cm x 40.3cm\_\_순지에채색\_2023





득중정어사도 \_ 65.2cm x 37.2cm\_순지에채색\_2023



배다리\_ 65.2cm x 37.2cm\_\_순지에채색\_2023









환어행렬도\_ 65.2cm x 37.2cm\_순지에채색\_2023





창경궁\_ 65.2cm x 37.2cm\_\_순지에채색\_2023



모시반차도 숫자책\_부분컷







모시반차도 숫자책\_ 330cm x 33cm\_\_모시에채색\_2023



**Lee, Hwa**

The Painting of King Jeongjo's Procession to His  
Father's Tomb into the Painting Book.

2023. 11. 8 – 11. 12